



謁見

알

현

발신

1457년 영월 백성 엄홍도

저 멀리 들려오는 강물 소리에
임금님의 안녕을 묻습니다.

보잘것없는 백성의 손으로 산을 뒤희 겨우
햇나물 몇 줌을 캐왔나이다.
유배지의 차가운 밤, 임금님의 수저가 차마 들리지 않으실까
노심초사하며 이 나물을 정성껏 띄어 올립니다.
비록 화려한 궁궐의 수라는 아니오나,
여기 담긴 것은 영월의 땅이 띄운 생명력과
저희의 일편단심뿐입니다.
부디 한술 뜨시고, 기운을 차려 다시 웃어주소서.
당신이 계셔야 저희의 봄도 비로소 피어납니다.
오늘만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소서.
당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고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영월 마을 사람, 엄홍도 올림

답장

2026년 오늘의 단종

고립된 섬 같던 나의 하루에
당신들의 진심이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섬,
청령포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왕좌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어요.
고립된 시간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한 것은
담장 너머 백성들이 건네준 투박한
나물 한 줌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서린 맛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지금 고단한 유배지 같은 일상을 지나고 있다면
이 영월의 정성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영월의 봄날, 단종이 전함



1. 동강의 전설이었던 전산옥 주모가 김손에게 내어주던 따뜻한 밥상처럼, '생활 속 명인'이 정성과 온기를 모아 단종에게 가장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밥상을 내어주려 한다.

2. 보덕사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마을기업’다운 것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가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영화를 만들어왔다”라고요. 아마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는 사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돌아본 영월의 세 마을기업 역시, 거장의 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손으로 익힌 생활 속 명인이 모여 치유의 밥상을 만드는 덕적영농조합법인, 수입 농산물이 넘쳐나는 시대에 ‘땅의 근본’인 고품질 밀과 콩을 재배하는 예밀포도마을, 최대 납품처를 잃은 위기를 겪었지만, 마시는 꽃에서 심는 꽃으로 밥상을 전환한 외갓집영농조합법인까지. 전국 1,800여 개의 마을기업이 저마다의 색깔로 지역의 내일을 일구어낸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한 치의 이윤만을 좇는 게 아닌, 지역의 고유성을 지켜가며 공동체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가치로 빛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마을기업’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월, ‘왕의 3색(色) 로드’ 지역을 살린 마을기업의 세 가지 길을 따라서

단종의 애달픈 역사와 낭만 여객 김삿갓의 풍류가 공존하는 곳. 또한, 굽이치는 동강의 물길에 머물고 별빛이 내려앉은 고요한 시간의 마을, 강원도 영월. 이 아름다운 고장에는 자연이 준 선물과 이웃의 따스한 손길을 더해, 내일의 희망을 일구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 특히 영월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가져다준 선물을 놓치지 않고, 이곳만의 특색을 살려 마을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월의 자연을 밥상 위에 올려 ‘왕의 3색 로드’를 완성해 낸 곳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자본이나 대기업 시스템이 아닌, 우리네 이웃이 모여 이루어낸 이 공동체는 어떻게 영월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을까요? 영월의 세 마을기업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마을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색

생명의 안부,

錄

생활 속 명인이 연대하여 만들어낸 ‘치유의 밥상’

영월군 북면 덕적영농조합법인

1. '생활 속 명인'이 모인 마을, 덕적영농조합법인은 얼마 전 발대식을 올렸다. 이들은 마을을 위해 서로의 솜씨를 합쳐, 성공적인 마을기업으로 가는 첫 발걸음을 뒀다.

2. 덕적영농조합법인의 '생활 속 명인'은 수십 년 동안 몸에 익은 감각으로 음식을 만든다. 그들의 경쟁력은 세월이다. 영월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내로라할 정도로 맛과 솜씨가 일품이라고.



문치령 아래 주막, 전산옥 주모의 따뜻한 진심을 이어가는 곳

영월군 북면 덕적길은 조선시대 때 육로를 이용하는 이들이 영월 시내나 다른 마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고개, 문치령이 있는 곳.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세가 깊은 탓에, 과거 김손들이 험한 재를 넘기 전 주막에 들리곤 했습니다. “황새여울 뒤편까리에 떼를 지어 놓았네, 만지산 전산옥이야 술상 차려 놓게.” 바로 이 주막은 정선 아리랑의 주인공이자, 동강에서는 전설적인 주모로 통했던 ‘전산옥 주모’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때 그 주막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들어선 마을기업 덕적영농조합법인은 전산옥 주모가 김손에게 내어주던 따뜻한 진심을 이어갑니다. 거대한 자본이나 시스템이 아닌, 영월 땅에서 자란 곡식과 우리네 이웃 손맛으로 밥상을 차려 냅니다.

이대로 우리 마을 가마솥 불을 끄게 둘 순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덕적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자 덕상리 이장인 김성달 씨는 염소를 보러 우연히 이 마을에 찾아왔다가 “‘천국’을 만난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이 마을 풍경에 반해 김성달-엄태열 부부는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곳의 맑은 물과 공기로 장을, 아내는 산속에 숨은 다양한 나물을 찾아 밥상 위에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 마을의 가마솥은 점점 온기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농촌의 소멸’이라는 큰 화두와 만나야 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소멸해 가는 마을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에 반해 살게 된 이 마을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싶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은 답은, ‘생활 속 명인’을 마을로 모아 ‘명인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생활 속 명인’은 정해진 레시피가 아닌, 수십 년 동안 몸에

익은 감각으로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마을 사람에게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생활 속 명인’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만 국한하지 않으며, 생활 속 다양한 분야의 명인이면 누구든 환영한다는 취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명인을 선별하는 데에는 마을만의 엄격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요.

생활 속 명인, 마을에 모여 ‘연대’하다

그리하여 현재, 마을에는 17명의 다양한 ‘생활 속 명인’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대하며 마을 가마솥에 다시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는 영월에서 내로라하는 장(醬), 두부, 김치, 전병 명인이 모여 최고의 밥상을 차려 냅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는 매년 가을, 걷기 축제를 열곤 합니다. 그때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참여 인원만 300여 명, 올해는 더욱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식가인 ‘식객’ 허영만과 배우 장근석이 <허영만의 백반 기행> 방송 촬영을 위해 직접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가마솥으로 손수 만들어낸 명인의 깊은 맛에 무릎을 ‘탁’ 치고 갔을 만큼, 그 솜씨는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맛이 깊어지기 위해 장(醬)이 숨을 고르듯, 마을의 가마솥에 다시 불을 때고 술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17명의 ‘생활 속 명인’은 얼마 전 마을기업을 위해 두 번째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내로라하는 명인이라 각자 어디에서 장사를 하든 큰 이윤을 좇을 수 있음에도, 서로의 솜씨를 뽐낼 수 있는 무대가 전국 어디에든 있음에도, 이들은 마을을 위해 서로의 솜씨를 합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졌어도 ‘내 둥지’는 결국 우리 마을 술단지 앞”인 걸 이제는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솜씨를 전국구로 알리는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솜씨를 상품화할 수 있을까?’, ‘지속적인 이익을 얻어 성공적인 마을기업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합니다. 영월 땅이 내어준 훌륭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 창구 역할 역시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도 함께요.

기력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초록빛 밥상, 고독한 왕의 식탁에 온기를 채우다

덕적영농조합법인은 마을기업이 개인의 화려한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가마솥의 온기를 지켜내는 연대의 구심점임을 증명해 냈습니다. 그 옛날, 유배지에서 버텨야 했던 단종을 달래준 싱그러운 어수리 향처럼. 또,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청령포의 초록 소나무가 그에게 건네주었던 위로처럼. ‘생활 속 명인’의 연대로 다시 끓기 시작한 덕적의 밥상은 기력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초록빛과도 같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누군가 영월을 떠올렸을 때, 언제든 찾아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갈 수 있는 ‘영원한 쉼표’ 같은 공간”이길 바란다는 이들의 바람처럼, 덕적의 밥상은 파편화된 현대인을 위로하고, 고독한 왕의 식탁에도 온기를 채웁니다. ❶



기다림의 씨앗,



‘땅의 근본’을 지키는
뚝심으로 이루어낸
상생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포도마을

- 1. 고품질의 콩과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땅이 우리에게 내어준 선물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곳. 영월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회암 지대로, 토양 자체에 미네랄 함유량이 높아 훨씬 더 단단한 곡식이 자란다고.
- 2. 예밀1리 마을기업에서 생산해 내는 콩과 밀, 영양분도 높은 데다 품질이 좋아 매년 생산하는 곡식 전량을 강원도 각지에 납품한다고.
- 3. 영월 땅이 내려준 고품질 곡식에 가격 경쟁력을 더하고, 고령화된 마을 주민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 가장 마을기업다운 상생의 율타리를 일구어낸 예밀1리 마을기업 전경래 대표.



경쟁력으로 수확하는 모든 콩을 강릉 초당두부에 납품하며, 밀 역시 강원도에서 내로라하는 제빵 업체에 전부 납품합니다. 수확하는 모든 곡식을 남김없이,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할 수 있게 되자 마을기업에서 콩과 밀을 재배하는 농부는 곡식의 품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고령화가 심해 마을에서 일할 인구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은 평생 쌓아온 지혜로 작물을 정성껏 키워내기만 하면 됩니다. 수확 선별 납품 등, 특히 강도 높은 노동이 필요한 부분은 마을기업에서 기계와 시스템으로 대체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일은 마을기업이 공동으로 짊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결실은 우리네 이웃과 나누는 것. 마을기업이란,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소외된 이웃까지 품어 안는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상생의 율타리임을. 예밀1리는 가장 마을기업다운 상생의 현장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척박한 땅에 심은 기다림의 씨앗,
단단한 마음이 되어 왕을 지키다

예밀1리 마을기업은 “수입산에 밀려나는 강원 밀과 토종 콩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라 믿고, 신품종 콩인 ‘대왕 2호’ 재배를 뚝심 있게 늘렸습니다. 덕분에 최고의 품질인 곡식을 최고의 업체에 꾸준히 납품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단단하게 뭉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농사가 ‘기다림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면, 모두가 척박하다 일컫는 이 땅에 심은 씨앗은 그 어느 곳보다 단단한 마음이 되어 싹을 틔우지 않을까요. 이 단단한 마음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하얀 뚝심이야말로, 청령포에서 홀로 매설고 차가운 바람을 견뎌내야만 했던 어린 왕에게 바치고 싶어집니다. ❶



희망의 뿌리,



시련을 넘어
영월의 길섶에
‘향기’를 심다

영월군 상동읍
외갓집영농조합법인

- 1. 우리동네 ‘외갓집’처럼 정겨우면서도 든든한 마을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외갓집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김미옥 대표.
- 2. 한 송이는 쉽게 꺾이지만, 여러 송이면 꺾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영월의 마을기업 외갓집영농조합법인.
- 3. 마을 주민이 정성껏 키운 야생화를 두고, ‘마시는 꽃’에서 ‘심는 꽃’으로 발상을 전환했다. 이제는 찻잔 안이 아니라, 영월 길섶마다 향기를 피워낼 꽃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위기를 마주했을 때도,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영월군 상동읍의 외갓집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이후 선정된 마을기업 중 하나로, 지역 주민이 직접 재배한 야생화와 건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상품만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삶에 지친 도시인이 찾아와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정겨운 외갓집’ 같은 공간을 지향해왔습니다. 상동 지역의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자립적인 모델을 만드는 일. 정직하게 키운 농산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곳. 하지만 순항하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듯, 이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본래 야생화 차와 산나물 가공으로 이름을 알렸던 이곳은, 시장 환경의 변화와 주요 납품처와의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이들은 위기라는 빗줄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나더라도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마시는 꽃’에서 ‘심는 꽃’으로

마을 주민이 정성껏 키운 야생화가 갈 곳을 잃은 상황. 위기 속에서 이들이 주목한 것은 ‘마시는 꽃’이 아닌 ‘심는 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정원

가꾸기나 도시 조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빠르게 읽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꽃을 따서 말려 차로 만드는 대신, 꽃의 생명력을 그대로 전달하는 꽃 종묘와 모종 분양으로 주력 품목을 과감히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 팬지 같은 아름다운 꽃 종묘를 영월군청에 납품, 이제는 영월의 길섶마다 지지 않는 희망의 향기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오히려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로 돌파구를 찾은 이들의 이야기는 한 송이는 쉽게 꺾이지만, 여러 송이면 꺾이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마을기업이 가진 경이로운 회복 탄력성을 입증한 셈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끈질긴 생명력’이 마을기업의 본질임을, 이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도 새 씨앗을 심고 모종을 키워내는 시간. 이렇게 외갓집영농조합법인은 찬란한 봄, 두 번째 새싹을 틔우려 합니다.

백성의 정성으로 다시 피어난 왕의 숨결
영월의 향기가 되어
희망을 꿈꾸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결국엔 자신이 뿌리내린 지역을 더 아름답게 꽃피우는 일. 위기를 맞이한 마을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을 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한 땀 한 땀 정성껏 심은 노란 ‘희망의 뿌리’가 영월의 향기가 되어 남아갑니다. 청령포의 어린 왕에게도 이 향기가 닿기를. 이제는 부디, 왕의 숨결에도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❷



웹진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월 단종문화제

마을기업 부스로 놀러오세요!

영월의 정성으로 빚은 맛과 멋,
그리고 주민들의 따뜻한 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 4. 24(금) ~ 4. 26(일)
10:00 ~ 18:00

영월 단종문화제 행사장 내
메인무대 굿즈샵 옆

특별한 방문 혜택
시식·시음 및 소정의 기념품 증정

세계유산영월장릉
관풍헌
영월문화예술회관
동강둔치
청령포

문화도시영월

제59호

단종문화제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2026
4.24(금)
4.26(일)

마을기업, 지역의 진심을 잇다

「마을기업육성법」시행 및
「마을기업의 날」 지정 기념

주최·주관 | 영월문화관광재단

후원 | 강원특별자치도 | 영월군 | KANGWON LAND | 강원랜드



영월 단종문화제 행사장 내 '마을기업 부스'